

「현수문전」 경판본의 표면적 지향과 이면적 실체

주수민*

<차례>

1. 서론
2. 경판본의 서사적 특징
 - 1) '왕조교체'에 집중된 서사 전개
 - 2) 고소설 서사문법의 파괴, '예언의 불발'
3. 인물형상에 나타난 경판본의 작자인식
 - 1) 충성심이 강화된 주인공 부자
 - 2) 천벌을 받는 신천자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수문전」 경판본의 서사적 특징과 작자의식을 선본과의 관련 속에서 논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경판본의 서사 전개는 선본에서 왕조교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들에서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송조의 멸망과 여진의 건국'을 담은 진강도인의 예언은 결국 불발했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을 통해, 경판본의 서사가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를 지양하는 가운데 송조의 존립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인물형상에 나타난 작자인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판본의 서사적 지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경판본에서 현수문·현침 부자는 충성심이 강화되어 있었으며 신천자는 천벌을 받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 선본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본고는 이러한 인물형상이 몇몇 충신들에 의해 간신히 존립하고 있는 송조의 위태로움을 부각하는 가운데, 결국은 송조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한 작자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판본이 존명 의식이 시의성을 상실해버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관념적으로 대명의리

* 홍익대학교 시간강사

를 추수했던 조선 후기 대외인식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현수문전, 경관본, 서사적 특징, 작자의식

1. 서론

『현수문전』은 19세기 초반 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편영웅소설로 결말이 다른 여러 이본들을 생성한 독특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본 연구는 본 작품에 대한 개별 연구에 있어 그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¹⁾ 더불어 본 작품의 주제의식 역시 이본별로 논의되어 왔는데, 논의의 대상이 된 주요 이본에는 구활자본계열을 대표하는 ‘조선서관본’과 필사본인 ‘천리대본’ 그리고 방각본인 ‘경관 65장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먼저, ‘송→여진→원’으로의 연속적인 왕조교체가 일어나는 ‘조선서관본’의 서사는 주로 봉건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체제에 대한 갈망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었다.²⁾ 또한 ‘송→여진(원)’³⁾으로의

1) 관련 논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범호, 『현수문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83쪽; 김종철, 『玄壽文傳의 분석』, 『인문논총』 1-1,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41~62쪽; 조해숙, 『〈현수문전〉 이본고-작품구성 및 주제의 변모양상』, 『한국국어교육연구논문집』 49, 한국어교육학회, 1993, 59~88쪽; 임체문, 『〈현수문전〉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04쪽; 김현정, 『활자본 〈현수문전〉을 통해서 본 독자성향』, 『한문학논집』 26, 근역한문학회, 2008, 95~101쪽; 줄고, 『〈현수문전〉 이본 연구』, 『정신문화연구』 1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27~255쪽.

2) 먼저, 김종철은 구활자본에 나타난 송조의 내우외환이 역적과 충신의 대결을 그린 여타의 영웅소설 작품들과는 달리 천자의 失政과 無道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활자본에 ‘宋’으로 표상되는 당대 봉건체제의 기능 붕괴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백성들의 갈망이 담겨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김종철(1990), 위의 논문, 50~52쪽. 더불어 조해숙은 송나라의 멸망과 여진 및 원나라의 건국이 결국은 허물어진 군신관계를 새로운 군신관계로 극복하고자 했던 작자

왕조교체만을 다루고 있는 ‘천리대본’은 기본적으로 구활자본계열에 근접한 의식을 보이면서도 구활자본에 나타난 급진적 서사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자 한 개작의식의 산물로 읽혔다.⁴⁾ 그리고 끝내 송조가 유지되는 결말을 맺고 있는 ‘경판 65장본’은 여타의 이본들과는 달리 군신관계에 있어 ‘충절의식’을 선양코자한 작자의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⁵⁾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작품의 주제의식이 중세 봉건체제에 대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으며, 김현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활자본에는 천자에 대한 신하의 충성심보다는 천자의 덕을 강조하는 당대인의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조해숙(1993), 위의 논문, 84~85쪽; 김현정(2008), 위의 논문, 105~106쪽. 한편, 김수봉, 김용기는 왕조교체의 주체가 이민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작중 왕조교체가 각각 ‘중화사상을 벗어난 새로운 인식’과 ‘민족을 초월하여 天意가 순환될 수 있다는 작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김수봉, 『현수문전의 영웅소설적 위상』, 『한국문학논총』 14, 한국문학회, 1993, 189~195쪽; 김용기,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 연구 -<음양삼태성>과 <현수문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126~130쪽. 한편, 필자는 줄고를 통해 구활자본계열의 이본들이 정명기본(1899)과 같은 세책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1859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윤표본 역시 구활자본과 동일한 서사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줄고, 위의 논문(2014), 245~246쪽.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활자본 뿐 아니라 ‘왕조연속교체형’의 서사를 지닌 여타의 이본들 역시 구활자본과 동일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천리대본은 송나라가 여진에 의해 멸망하는 서사만을 다루고 있으나, 여진이 세운 나라의 국명을 ‘원나라’라 적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양상을 본 이본이 원나라 건국 서사가 포함된 이본 즉, ‘왕조연속교체형’의 이본을 저본으로 하여 생성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줄고(2014), 앞의 논문, 242~243쪽.
- 4) 김종철은 천리대본이 구활자본과 유사한 작자의식을 담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개진하였으며, 조해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리대본에 여진의 위국 공격과 현침의 원나라 건국 서사가 부재함을 들어 본 이본이 전체적으로 구활자본의 주제의식을 따르면서도 구활자본에 나타난 급진적이고도 과도한 질서 붕괴와 주인공 및 그 후손이 새 왕실의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과도한 설정을 피하고자 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임채문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김종철(1990), 앞의 논문, 61~62쪽; 조해숙(1993), 앞의 논문, 85쪽; 임채문(2005), 앞의 논문, 44쪽.
- 5) 최범호(1986), 앞의 논문, 79쪽; 조해숙(1993), 앞의 논문, 84~85쪽; 임채문(2005), 앞

한 당대인의 다양한 인식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필자는 최근 연구에서 「현수문전」 이본들을 ‘왕조연속교체형’, ‘왕조단일교체형’, ‘왕조유지형’, ‘왕조긍정형’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왕조연속교체형’의 하나인 홍윤표 소장 필사본을 선본으로 비정한 바 있다.⁶⁾ 더불어 「현수문전」이 상이한 서사적 결말을 가진 이본들을 생성한 데에는 19세기의 화이관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⁷⁾ 선본의 서사에는 작자의 ‘탈 화이관’이 표방되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⁸⁾ 필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선본과 다른 결말을 보이는 이본들의 서사는 개별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선본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⁹⁾

의 논문, 39~44쪽.

- 6)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홍윤표본을 포함한 총 16종의 이본들을 먼저 전반부의 서사적 차이를 중심으로 2개의 계열로 나누고, 다시 후반부에 나타나는 왕조교체의 유무와 양상에 따라 ‘왕조연속교체형’, ‘왕조단일교체형’, ‘왕조유지형’, ‘왕조긍정형’ 등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예언의 실현’을 비롯한 서사적 개연성을 중심으로 검토 대상 이본들 가운데 ‘왕조연속교체형’에 속하는 필사본인 홍윤표본을 선본으로 비정한 바 있다. *졸고(2014)*, 앞의 논문, 228~249쪽.
- 7) 필자는 본 작품의 서사가 조선 후기 오락개로 인식되었던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를 천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창작시기로 추정되는 19세기 초반의 독서 대중들에게 폭 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19세기 여전한 화이관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맺는 이본들의 생성을 확산시켰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졸고*, 「한글 고소설 이본 확산의 일 경향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95~98쪽.
- 8) 필자는 무도한 송나라 천자의 모습과 천명으로 그려진 이민족의 왕조교체를 근거로 본 작품에서 중화의 왕조인 송조의 멸망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두 번의 왕조교체 과정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현수문전」 선본의 서사가 조선 후기의 正統論에反하는 역사인식과 華夷無分의 세계인식을 표방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졸고*,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식 연구-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17~134쪽.
- 9) 정충권은 여타의 <토끼전> 이본들과는 달리 수궁에서 육지로 올라온 자라가 토끼의 배꼽을 물어 죽인 후 간을 내어 입에 물고 용궁으로 돌아간다는 독특한 결말을 맺고

이에 본고에서는 선본의 서사 및 작자의식과의 관련 속에서 『현수문전』의 주요 이본 가운데 하나인 경판본의 서사적 특징과 작자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선본과 경판본의 후반부 서사 비교를 통해 경판본의 서사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경판본의 서사가 표면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선본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수문 부자와 신천자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서사적 지향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판본에 내재된 작자인식의 실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경판본의 서사적 특징¹⁰⁾

각각 1859년과 1847~1885년 사이에 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윤표본과 경판본은,¹¹⁾ 수문의 초본 고난과 출장입상을 다룬 전반부 서사 전개

있는 고려대본 <별주부전>에는 “애초에 자라가 토끼 간을 가져갔다면 전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개작자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토끼전>의 개작에는 ‘서사적 의문의 해소’, ‘특정 인물 편들기’, ‘논쟁적 이의제기’라는 변이의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충권, 『판소리 문학의 비평과 감상』, 도서출판 월인, 2016, 268~286쪽. 필자 역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본 작품의 이본들이 보이는 서사 전개 역시 선본 서사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간 경판본을 비롯한 본 작품의 이본들은 선본이 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된 까닭에 『현수문전』이라는 작품의 일부로서 고찰되기보다는 개별 서사로서 연구되었다. 따라서 선본이 비정된 이상 본 작품의 이본들은 선본 서사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10) 본고는 현재 대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판 66장본(상·하권)을 주요 텍스트로, 선행연구에서 선본으로 비정된 홍윤표 소장 필사본(4권4책/총151장)과 월촌문헌연구소에서 1986년에 편한 『한글고소설자료총서 49』에 영인된 박순호 소장 필사본(1권1책/총64장)을 비교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에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경판 65장본(상·중·하권)은 경판 66장본의 판목을 부분적으로 산략 혹은 개작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본 간 유의미한 서사적 차이는 발견되지

에 있어서는 상당히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수문이 위왕이 되어 위국에 정착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 서사는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본과 경판본의 후반부 서사 비교를 중심으로 경판본의 서사 변개 지점을 확인하고 더불어 경판본에 나타난 ‘예언의 불발’에 담긴 서사 내·외적 의미를 통해 경판본의 서사가 지향한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왕조교체’에 집중된 서사 변개

먼저, 선본과 경판본의 후반부 사건단락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선본과 경판본의 후반부 사건단락 비교¹²⁾

사건단락	선본(홍윤표본)	경판본
①	위왕 현수문이 위국 정착 후, 수문에게 죽임을 당한 부친의 복수를 위해 위국에 잠입한 서번의 장수 약대의 딸 무양춘과 모사 양평공의 딸 계양춘을 내치다.	좌동
②	진번왕의 후궁이 된 무양춘의 권유로 진번이 송을 공격하나 수문이 이를 진압하여 송실을 구하다.	좌동
③	송 천자가 수문과 그의 차자(次子) 현담, 백마천 등에게 태자를 부탁하고 붕어(崩御)하다.	좌동
④	신천자가 간신의 말을 듣고 선제가 위왕에게 할양한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며 현담을 죽이고 주변국	좌동

않음을 밝혀둔다.

- 11) 필자는 경판본이 간행된 유동방각소의 활동시기에 대한 이창현의 선행연구와 홍윤표본의 필사기를 중심으로 두 이본의 산출 시기를 이와 같이 추정하였다. 줄고(2014), 앞의 논문, 248쪽.
- 12) <표1>은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본별 후반부 서사 비교표를 본고의 내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줄고(2016), 앞의 논문, 91~93쪽.

	과 더불어 위국을 공격하자 위왕이 천자와 맞서 싸워 이기다.	
⑤	흉노가 송을 침범하자 위왕이 선제의 유고를 생각하여 한 번 더 송실을 구한 뒤 신천자를 보지 않았다고 다짐하고 위국으로 귀환하다.	좌동
⑥	⑥' 여진왕이 후궁이 된 양평공의 딸 계양춘의 충동으로 송을 침범하고 위왕이 칭병하여 돕지 않음으로 송나라가 멸망하다. (왕조교체1: 송→여진)	여진이 송을 침범하여 신천자가 위국에 도움을 청하자 위왕이 두 아들과 함께 출정하여 여진왕을 죽이고 또 다시 송실을 구하다. (왕조교체x: 송조 존립)
	⑥" "	
⑦	여진의 천자가 위국을 공격하여 위왕이 천자를 사로잡으나 그에게서 천자의 기상이 있음을 보고 놓아주며 송나라의 사직을 보전하기 위해 송 선제의 말자를 한중 땅의 왕으로 봉해 줄 것을 요청하다.	x
⑧	⑧' 위왕 현수문이 죽은 뒤, 삼자 현침이 부친의 유고에 따라 남정산 엄도인에게 수학 후 몽골왕 흘필렬과 의기투합하여 위국을 공격한 여진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우다. (왕조교체2: 여진→원)	위왕 현수문이 죽자, 신천자가 또 다시 간신들의 농단에 빠져 위왕 현침의 왕작을 거두고자 서천 환수를 요구하고 현침을 해하기 위해 황성으로 불러들이나 일광대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왕조교체x: 송조 유지)
	⑧" "	
⑨	⑨' 원나라 건국의 공으로 기왕이 된 현침이 천정(天定)으로 원나라의 부마가 되고, 공주를 비롯한 세 명의 부인과 함께 기국에서 무한 복록을 누리다.	신천자가 돌연 혼절하자 현침이 일광대사가 준 회생단으로 천자를 구하고, 이후 천자 정신이 맑아져 서천을 돌려받고 위국으로 돌아와 무궁한 영화를 누리다.
	⑨" "	

‘수문의 출생→부모이산→일광대사의 양육→석참정의 구제 및 운혜와의 결연→장모 방씨의 박대로 인한 부부이별→과거급제 및 출장입상→가족재회’로 이어지는 전반부 서사 전개에 있어 경판본은 여타의 이본들과는 달리 선본과 상당히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¹³⁾ 더불어 여기서 경판본과 선본이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단지 사건의 전개 양상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이본이 송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⁴⁾ 또한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 두 이본은 미시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후반부 서사 전개에 있어서도 사건단락 ①~⑤까지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판본의 서사는 ⑥을 기점으로 선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선본의 송나라가 ⑥'와 같이 여진의 침입을 수문이 방관함으로써 멸망한 것과는 달리, 경판본의 송나라는 ⑥"에서처럼 수문의 활약에 힘 입어 다시 한 번 망국의 위기를 극복한다. 따라서 경판본에는 ⑦과 같이 위왕 현수문이 여진왕을 천자로 인정하는 가운데 여진왕이 송 선제의 말자인 양평대군을 한중 땅의 왕으로 봉하는 내용 따위는 나타나지 않는다.¹⁵⁾ 더불어 ⑧~⑨는 수문 사후 그의 삼자인 현침을

13) 경판본은 ‘왕조단일교체형’의 이본인 천리대본이나 ‘왕조공정형’인 박순호본과는 달리 전반부 서사 전개에 있어 선본과 동일한 서사 전개를 보이는 까닭에 ‘왕조연속교체형’의 이본들과 같은 계열로 분류되기도 했다. 줄고(2014), 앞의 논문, 236쪽.

14) 『현수문전』 이본들 가운데에는 송나라 및 송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본들과 송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화되거나 혹은 반대로 송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하게 표출된 이본들도 존재하는데, 선본을 비롯한 ‘왕조연속교체형’에 속하는 이본들과 경판본은 송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본들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박순호본이나 천리대본에서 서사 초반 송나라를 침입한 운남은 노력질을 하다 송군에 패해 달아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선본과 경판본에서 송을 침입한 운남은 송 천자를 광정한 뒤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15) 필자는 줄고를 통해 송나라의 사적이 한중으로 옮겨 갔다는 선본의 서사는 역사상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기에서도 두 이본 간 명확한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⑧은 공통적으로 수문으로 인해 존립하고 있는 여진과 송나라의 천자들이 수문 사후 각각 위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다시 말해, ⑧'에서는 수문이 천자의 기상이 있음을 인정해줌으로써 천자가 될 수 있었던 여진의 천자가 위국을 침공하며, ⑧"의 경우 수문의 활약으로 송실을 지킬 수 있었던 신천자가 또 다시 간신들에게 미혹되어 현침의 왕좌를 거두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선본이 몽골왕 흘필렬과 의기투합하여 여진을 멸하고 원나라를 건국하는 현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경판본은 일체의 저항 없이 신천자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현침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후 경판본의 서사는 ⑨'와 같이 원나라 개국공신이 된 현침의 영화를 보여주는 선본과는 달리, ⑨"에서 처럼 현침과 신천자의 관계 회복을 주요하게 다루는 가운데 종결된다. 이러한 양상은 경판본이 선본에서 왕조교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들에 대한 적극적 서사 변개를 통해 선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서사적 결말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경판본의 서사는 선본에 나타난 왕조교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변개된 것이다.

2) 고소설 서사문법의 파괴, '예언의 불발'

경판본의 서사 변개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본에서 적중되었던 작중 예언의 일부가 실현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노용 왈, “그디, 아비 원슈를 잡고져 흥여 녀화위남흥고 쥬류턴하흥니 엇

남송(南宋, 1127~1279)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진의 천자가 한왕을 봉했다는 것은 북송에 이어 남송이 아닌 금나라를 중국의 정통 왕조로 인정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줄고(2017), 앞의 논문, 128~130쪽.

지 길을 날다려 못느뇨?” 양춘이 대경 왈, “선심이 밋셔 근분을 아르시니
엇지 은휘허리잇고” 하고 전후스를 즈시 니르니 노옹 왈, “위왕 현슈문은
일광대스의 술법을 비와시니 뉘 능히 당허리오. 닥 텃문을 보니 송 톡지 위
왕을 박딧혀 망허기의 니르러시니 엇지 하늘이 무심허리오? ㉠위왕이 훈
번 공을 갑흔 후 다시 아니 도오리니 그딧는 녀진국의 가면 반드시 황휘되리
니 텃긱를 뉴설치 말나” 하고 환약 세기를 주며… [경판본, 하권-16b~17a]

위는 앞의 <표1>의 사건단락 ②에서 진번과 송나라의 전투에서 홀로
목숨을 건져 탈출한 양평공의 딸 계양춘이 진강도인에게 송나라와 자신
의 미래사를 듣는 장면을 인용한 것이다. 작중 천기를 꿰뚫는 이인(異人)
으로 설정된 진강도인은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송 태자 즉, 신천자가
위왕을 박대한 까닭에 위왕이 송나라를 돕지 않아 결국 송조가 망하고 계
양춘이 여진의 황후가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강도인은
여진의 건국과 송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강도인
의 예언은 선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¹⁶⁾ 선본에서 진강도인
의 예언들은 모두 적중한다. 더불어 진강도인이 예언한 일들은 경판본에
서도 실현되는 듯 한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이후의 서사에서 경판본
의 양춘은 선본과 같이 여진에 들어가 여진왕의 후궁이 되어 그의 아들을
낳게 되고, 신천자의 탄압으로 수문과 송조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
화된다.¹⁷⁾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흉노가 송나라를 침범하자 경판본의

16) 『“넉 텃문을 보니 송텃즈의 톡지 즉위허여시나 팔년을 간신이 농권허여 위왕을 박딧
허리니 연즉 송실이 망홀지라 …<중략>… 톡지 비록 위왕을 박딧허여시나 훈 번 공
을 갑고 다시는 아니 도올 거시니 그딧는 진국의 드러가 진통허여 셤기면 반드시 톡
공을 세우고 텃즈 디위를 어더 황휘 될리니 엇지 캐치 아니리오” 흥윤표본, 권지삼
-48장』

17) 신천자는 선제 사후 간신들의 말을 듣고 선제가 수문에게 할양한 영토의 반환을 요
구한다. 그리고 수문이 이를 따르지 않자 수문의 둘째 아들인 현담을 죽여 짓 담아

위왕은 ㉠에서 진강도인이 예언한 바와 같이 한 번 더 송실을 구한 뒤, 다음의 인용문에서처럼 신천자와의 결별을 선언하기도 한다.

“나는 위왕 현수문이다. 오늘 이곳의 와 텃즈를 구흐른 선제 유교를 봉송
흐미니 다시 보기 어렵도다.” 하고 진을 도로혀 본국으로 도라가거늘… [경
판본, 하권-16a]18)

또한 흉노의 공격이 있는 이후, 여진왕은 진강도인이 추천한 도인 신비회를 모사로 삼아 송나라를 침범하고 계양춘과 신비회의 활약에 힘입어 송조의 멸망을 목전에 두기도 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진강도인의 예언은 여진에 의해 망국의 위기에 빠진 신천자가 위국으로 보낸 조서에 현수문이 응하면서 불발하기 시작한다.

위왕이 비록 노장이나 용역이 족히 소년 골디를 당흐니 검광이 번기 갖흐
여 동을 쳐 셔를 응흐고 남을 쳐 복장을 버히니 그 용역을 가히 알지라. …
<중략>… 또 위왕이 ㉡녀진왕의 버리를 버혀 들고 군을 모라 좃치니 압히
는 현위, 현침과 도충병마 설연이 치고 뒤히는 위왕이 치니… [경판본, 하권
-24a~24b]

다시 말해, 조서를 받고 황성으로 달려간 위왕은 ㉡과 같이 여진왕을 죽이고 다시 한 번 송조를 위기에서 구한다. 더불어 여기서 여진왕의 죽음은 단순히 적국의 왕을 제거했다는 것을 넘어 ‘천명(天命)’을 받은 주체가 사라짐으로써 진강도인이 예언한 왕조교체의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

위국에 보냈으며, 주변 국가와 연합하여 위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수문은 이러한 신천자의 공격에 무력으로 맞서 싸워 이긴다.

18) 더불어 이러한 내용은 선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한다. 따라서 경판본에서 진강도인이 예언한 송조의 멸망과 여진의 건국은 결국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지하듯, 우리 고소설 일반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인 지감화소’는 이후 사건의 전개 방향을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양상은 고소설에 나타난 작중 예언들이 대부분 적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고소설에서 발화된 예언의 실현은 일종의 서사문법으로 자리하고 있다.¹⁹⁾ 더불어 후반부 서사에서 진강도인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전반부 서사에 나타난 수문의 출장입상 및 가족상봉과 관련된 예언들과 이후의 서사에서 발화된 예언들은 하나 같이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²⁰⁾ 따라서 경판본에서 유독 진강도인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송조의 멸망과 여진의 건국’이라는 예언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판본의 서사 변개는 선본에서 왕조교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

19) 현해경은 <소대성전>, <낙성비룡>, <신유복전>, <박씨부인전>, <영이록> 등을 지인 지감유형 고전소설로 보고 이들 작품이 ‘피지자의 처지몰락→지자의 지감에 의한 피지자의 발탁과 결연→피지자에 대한 후원과 장애→피지자의 지감적중’이라는 공통된 서사구조를 보인다고 하였다. 더불어 논자는 이들 작품이 비범한 자질을 지녔지만 미천한 처지에 있던 인물이 지감에 의해 보다 우월한 배우자와 결연한 뒤 장애를 극복하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현해경, 『지인적유형 고전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67쪽. 선본의 계양춘 역시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진강도인을 만나게 되고 진강도인의 지감에 따라 여진왕과 결연한 뒤 이후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여진의 황후가 된다.

20) 본 작품에서 예언은 이인으로 설정된 일광대사 뿐 아니라 석참정이나 현수문, 차복 및 약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발화된다. 그리고 이들의 예언은 예외 없이 실현된다. 본 작품의 이본들에 나타나는 예언의 내용과 실현 양상은 줄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줄고(2014), 앞의 논문, 241쪽. 더불어 이후 경판본의 서사에 나타난 일광대사의 예언들 역시 하나 같이 실현된다.

서 ‘예언의 실현’이라는 고소설의 서사문법은 이례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선본에 나타난 왕조교체 및 진강도인의 예언 속에서 천명을 받은 주체가 모두 여진이나 몽골과 같은 이민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작중 배경 왕조가 교체되는 <장백전>, <유문성전>, <옥주호연>, <태원지>를 비롯하여 <오선기봉>이나 <금방울전> 등에서 창업의 주체가 한족(漢族)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²¹⁾ 따라서 경판본에 나타난 서사 변개는 궁극적으로 ‘송조의 존립’이라는 서사적 결말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인물형상에 나타난 경판본의 작자인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판본의 서사는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를 지양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송조의 존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민족에 의한 연속적인 왕조교체를 통해 조선 후기 ‘탈화이관’을 표방했던 선본의 서사적 지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²²⁾ 그러나 표면적 서사와는 달리, 인물형상에 나타난 경판본의 작자인식은 상당히 복

21) <장백전>, <유문성전>, <옥주호연>, <태원지> 등은 명나라나 송나라 혹은 대흥극과 같은 한족 왕조의 창업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오선기봉>이나 <금방울전>과 같은 작품들은 왕조의 창업 서사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으나 작중 배경이 이민족 왕조인 원나라에서 한족 왕조인 명나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22) 필자는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가 결국은 작자의 ‘탈화이관’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서사적 설정으로 보고, 이러한 선본의 서사가 궁극적으로 당대 이민족으로 중원을 지배하고 있었던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줄고(2017), 앞의 논문, 133~134쪽. 따라서 선본에 나타난 작자인식을 염두에 둘 때, 경판본이 송조의 존립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화이관의 고수로 읽힐 수 있으나 기실 경판본에 나타난 작자인식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본과는 차이를 보이는 위왕 부자와 신천자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경판본에 내재된 작자인식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충성심이 강화된 주인공 부자

선본의 위왕 부자가 각각 여진과 원나라의 건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경판본의 위왕 부자는 오로지 송조의 존립과 안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두 이본에서 위왕 부자는 서로 다른 인물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본 간 현수문의 인물형상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감지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석침이 간 왕, “불가하여이다. 텃지 무도하여 즈식의 고기를 그 아비게 보너신털 이제 왕이 스신을 죽이면 후세의 미명을 들으리니 스신을 돌아보너시고 조공을 폐하쇼셔.” ㉠위왕이 분긔철턴 왕, “자식의 고기를 그 아비게 보너니 이는 천고의 듯지 못하던 일이라. 스신을 버히고 병을 니로혀면 혼군이 쯔흔 기병접응허리니 그씨의 간신 악뉴를 다 버혀 즈식의 원슈를 잡고져 호노라.” 석침 왕, “만일 그러흔은즉 전하 루덕이 후세의 이슬가 호느이다.” 위왕이 침음냥구의 왕, “그딤 말이 올타” 호고 이의 스즈를 스허니… [홍윤표본, 권지삼-30a]

㉡위왕이 “일을 보고 크게 통곡하며 승상 석침을 도라보아 왕, “이제 텃지 즈식을 죽여 아비를 뵈믄 나의 미음을 분케하여 기병호물 권하미오 너 아모리 하여도 이신별군은 아니리니 그딤로 고흐라.” 혼딤 사지 도라와 위왕의 말을 고흐니 샹이 드르시고 일변 무안하나 분긔를 춤지 못허시거늘… [경판본, 하권-13a]

위는 신천자가 서천 환수를 거부한 위왕 현수문에게 그의 둘째 아들인 현담을 죽여 짓 답아 보낸 직후 선본과 경판본에 나타난 현수문의 반응을 각각 인용한 것이다. 인용문에서 선본의 현수문은 ㉠과 같이 신천자를 맹렬하게 비난하며 천사(天使)를 죽이고 나아가 이신벌군(以臣伐君)을 통한 복수를 말하고 있다. 반면, 경판본의 위왕은 ㉡과 같이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신벌군은 불가하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 형상의 차이는 이후 두 이본의 서사적 차이를 노정한다. 다시 말해, 이후 선본의 현수문이 여진의 침략으로 송실이 위기에 처했다는 신천자의 조서를 받고도 칭병(稱病)하여 외면함으로써 결국 송조를 망케 한다면,²³⁾ 경판본의 현수문은 곧바로 황성으로 달려가 신천자와 송실을 구해낸다. 더욱이 경판본의 현수문은 다음 인용문의 ㉢과 같이 신천자가 자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일을 “소소한 일”이라 말하며, 남은 자식들에게 송조에 대한 진충갈력을 당부하기도 한다.

각설 위왕 현수문이 텃즈의 박절흐시물 통한이 녀이나 그러나 조금도 원망치 아니흐며 밋양 텃심이 손상흐를 한흐고 국운이 오라지 아니를 슬허하며 여러 으들을 불너 경계 왈, “노뷔 출어세상흐여 허다 고초를 만히 지니고 일즉 농흐방의 춤너흐여 출장납상흐니 이는 텃은이 망국흐지라, 갈스록 텃은이 융성흐여 벼슬이 왕작의 거흐니 이는 포의 〃 과국흐지라. 이러모로 몸이 맛도록 나라홀 돕고져 흐느니 녀등은 진충갈역흐여 텃즈를 섬기고 ㉢ 소 〃 현담의 일을 싱각지 말나.” 흐고 누슈를 흘리더니… [경판본, 하권 -20b~21a]

23) 『위왕이 황지를 보고 변식 왈, “너 나히 만하 기력이 쇠모흐여시니 엇지 전일 쇼년 석갓흐리오! 그디 등은 몰호미 진통갈력흐여 데를 도와 만세무강흐고 늙근 나를 싱각지 말고 돌아가 텃즈기 늙근 복이 병이 깊어용도치 못흐를 알외라.” 흐고 안연부동흐니 스신이 민망흐여 여러 날 머무러 유흐되 홀 일 업서 도라와 이디로 복명흐은디… 흥운표본, 권지사-9b』

더불어 여진 토벌을 위해 황성으로 달려간 경판본의 위왕은 다음과 같이 신천자에게 표를 올리는데, 표문에는 전일 흉노로부터 송실을 구한 뒤 신천자를 보지 않고 위국으로 돌아갔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이 담겨 있다.²⁴⁾

‘위왕 현수문은 삼가 표문을 황상 농담 하의 올리옵나니 …<중략>… 본디 충을 직히는 뜻이 간절한 고로 저적 흉노의 난을 평정하고 폐하의 위티함을 구하여시나 뵈옵지 아니코 가몬 ㉠폐해 신을 보기 슬흔 뜻을 위흐미러니 이제 또 녀진이 반흔여 황성의 니르미 그 위티함을 보시고 구완을 청하시니 신이 엇지 적병이 니른줄 알면 편이 이시물 취하리잇가…’ [경판본, 하권-22b~23a]

다시 말해, 현수문은 선본에서와 같이 신천자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과 같이 신천자의 뜻을 헤아린 충심의 발로(發露)라 말하고 있다. 더욱이 위왕은 여진을 정벌한 이후 “저적 흉노를 파하고 폐하를 되시지 아니코 바로 위국의 도라가몬 세상 공명을 하직고져 흐미러니”²⁵⁾라며 이 일을 재차 해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경판본이 불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문의 행동을 변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선본에서 수문 사후 천명(天命)에 의해 몽골왕 흠필렬을 도와 원나라를 건국하고 기왕이 된 현침은 경판본에서는 수문의 뒤를 이어 위왕이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더불어 경판본의 현침은 현수문의 왕위만을 세습한 것이 아니라, 부왕과 같이 송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가령, 현침은 현몽한 일광대사를 통해 자신의 왕작을 거

24) 해명의 대상이 된 수문의 행동은 본고 각주18)의 인용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25) 경판본, 하권-25b.

두려는 신천자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신천자의 요구에 따라 서천을 반납하고, 사지가 될 수 있는 황성길을 기꺼이 천사와 동행한다. 더불어 황성에 도착하여 송군의 핏박에서 간신히 벗어난 뒤에는 갑작스럽게 졸도한 신천자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현침이 준 환약을 먹고 회생한 신천자는 “호리던 정신이 맑아지고 어두운 마음이 온전하여 누구는 그르며 누구는 오희를 판단”²⁶⁾할 줄 아는 인물로 거듭난다. 이러한 내용은 경판본의 현침이 신천자를 변화시킬 정도로 충성심이 강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후 경판본의 서사는 신천자가 위왕 부자의 공을 잊지 않고 그 사적을 기록하여 종묘에 감추는 것으로 종결된다.²⁷⁾

경판본의 수문 부자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본에서와는 달리 송조 및 신천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문 부자의 인물형상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충절의식을 선양코자 한 작자의도를 떠올리게 한다.²⁸⁾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경판본에서 수문 부자의 충성심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부각하는 대상이 적군이나 간신이 아닌, 절대적인 충의 대상인 송나라 천자라는 점이다.²⁹⁾ 따라서 수문 부자의 인물형상은 충절의식을 선양하기보다는

26) 경판본, 하권-31a.

27) 『위왕[현침]의 나히 사십이 되미 삼즈일너를 두고 여러 형제 다 각〃 너를 만히 두어 영충이 무궁하니 텃하의 이런 복록이 어니 이시리오 디〃로 충신열시 계〃 승〃 하더라. 텃지 쏘흔 위왕 부즈의 대공을 닛지 아니하시고 그 화상을 그려 그린각에 걸고 단서 철권을 만드려 만고충신이라 호샤 사적을 기록하시고 종묘의 감조시니라. 경판본, 하권-31b~32a.』

28) 본고 각주5) 참고.

29) 주지하듯, 일반적인 고소설 작품에서 주인공의 충성심을 부각하는 대상은 주로 간신이나 적군으로 설정되어 있다. 더불어 물론 경판본의 신천자 뒤에도 천자를 현혹케 하는 간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판본의 후반부 서사에서 간신과 현수문 부자의 직접적인 대립이나 마찰은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신천자는 지속적으로 수문 부자를 위협하는 가운데 송조의 안위를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송조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신천자에게서 비롯되고 있으며, 동시에 몇몇 충신들에 의해 간신히 존립하고 있는 송조의 위태로움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2) 천벌을 받는 신천자

선본의 신천자가 송나라의 멸망으로 폐제(廢帝)가 되어 충신 육수부와 함께 한수에서 최후를 맞는다면, 경판본의 신천자는 끝까지 천위(天位)를 보전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경판본의 신천자가 선본에서와 같이 혼암하고 무도할 뿐 아니라,³⁰⁾ 나아가 촘촘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짐이 불행하여 또 녀진의 난을 당하미 적세 크게 강성하여 성하의 니르니
 사직의 위티하미 조석의 잇는지라. …<중략>… 경은 선제 통신시오 만고의
 대공이어늘 짐이 잠간 싱각지 아니코 간신의 말을 좃츠 경을 부족히 녀이며
 그 으들을 젓 담아 보니여시니 ㉠젓지는 선제의 유교를 저버린 죄요, 돌지는
 스승을 죽인 죄요, 셋지는 선조 충신을 만모흔 죄요, 넷지는 서천을 환슈흔
 죄니 이런 중죄를 짓고 엇지 안보하기를 바라리오마는 이왕의 촉작지죄는
 회과하여거니와 이제 위티하물 당하여 붓그리물 무릅쓰고 사자를 경의게 보
 너느니…’ [경판본, 하권-21b]

앞의 인용문은 여진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신천자가 위왕에게 보낸 조서로, 신천자는 ㉠과 같이 자신이 위왕에게 지은 네 가지 죄를 절절하

30) 영웅소설 작품들에서 천자를 혼암한 인물로 그리는 것은 그리 특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작품의 선본과 경판본에 등장하는 신천자는 자신의 스승인 현담을 죽여 젓 담아 선제의 충신이자 현담의 부친이기도 한 현수문에게 보낼 정도로 잔인하고, 명분 없이 위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어 영웅소설에서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혼암한 천자들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게 시인하며 위왕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동일한 상황에서 선본의 신천자가 “한둥은 도로 보너오니 선제 림종 시 탁고를 싱각호오며 종스를 위하라”³¹⁾는 간단한 조서를 내린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문제적인 것은 수문의 도움으로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난 신천자가 이후 또 다시 전과 같이 혼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짐이 종사를 보전하기는 현수문 곳 아니면 엇지 하리오? 그러나 선제 심이 사랑하신 비어늘 이제 그 공을 닛지 아니 호고 기즈로 종사를 닛게 하미 잇더니 경등의 말을 드르니 심이 의심되도다.” 조충이 또 주왈, “현침도 쏘 혼용역이 잇는 재라. 제 형 답을 것 담은 혐의를 락양 싱각하고 황제를 원망하여 설분항을 발뵈고져 하나, 제 아뵈 교훈이 엄숙하므로 밋쳐 못 하여더니 이제는 기뵈 도라가고 거리기미 업스미 반다시 그져 잇지 아니 호오리니 그 근심되미 적지 아니 호을지라. 폐하는 녀이 싱각호소서.” 상이 “말을 드르시고 그러히 녀이사 그 힘을 츫” 덜고져 하여 ‘서천 일지를 도로 밋치라’ 호시고 조서를 나리오시니라. [경판본, 하권-28b~29a]

위는 신천자가 수문 사후 간신들의 말에 또 다시 현혹되어 현침의 왕작을 거두기 위해 먼저 위국의 서천 환수를 명하는 조서를 내리는 과정을 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신천자는 일광대사에 의해 재차 “혼암무도”³²⁾하다 일컬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다음은 천사가 신천자의 조서를 위왕에게 전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홀연 텃시 니르렀다 호거늘 왕이 마즈 샐레호은디 샐관 왈, “텃지 왕의 지방이 좁고 길이 멀물 염너하샤 먼저 서천 일지를 환슈하라 호시고 ㉠왕을

31) 흥윤표본, 권지사-10a.

32) 경판본, 하권-29a-b 참고.

보지 못흐를 한흐샤 특별이 사관을 보닛시며 흥가지로 올라오물 기다리시디
이다.” 흥고 조서를 드리거날… [경판본, 하권-30a]

여기서 천사는 서천을 환수하라는 조서를 전하면서 ㉠과 같이 신천자가 위왕에 대한 그리움으로 현침을 명초했다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실 신천자가 현침을 황성으로 부른 것은 위국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현침을 꺾박하기 위한 술수였다.³³⁾ 더욱이 경판본의 신천자는 끝내는 “충양지신을 몰나보고 난신적자를 갖가이”³⁴⁾한 죄로 천벌을 받아 혼절을 하기에 이른다.³⁵⁾ 이러한 신천자의 인물형상은 경판본과 같이 송조가 유지되는 결말을 맺고 있는 박순호본의 신천자가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주목을 요한다.

신황계 ㉠원닌 위국 상왕을 부형과 골육갓치 녀이며 선계 계측을 잊지 아니하야 고금치란 세덕흥망과 진현원간 세스일의를 먼저 알게 하며 스승을 삼아 호충 등부라 흥고 항상 연노흥시멸 앓기시다가 몽상지외의 통부스 이르니 아연흥스 슈족을 일은 듯 슬허흥여 못닌 통곡흥시며 예관을 보닛 죠상 흥고… [박순호본, 341면]

위의 ㉠과 같이, 박순호본에서 신천자는 “원래” 즉, 처음부터 ‘성군(聖君)’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천자의 인물형상은 유교적 정치구조

33) 이후 천사와 함께 황성에 도달한 현침은 수천 군마에 둘러싸여 꺾박을 당하다 부친인 현수문의 단저를 붙고 나서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판본, 하권-30a 참고.

34) 경판본, 하권-30b~31a.

35) 경판본, 하권-30b. 인용문은 혼절한 신천자에게 나타난 일관대사의 말이나 이는 인간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늘이 신천자를 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송조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이 천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에서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며, 천명을 받아 백성을 교화(教化)하는 덕(德)의 지존”³⁶⁾으로 인식되었음을 상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조가 유지되는 결말에도 불구하고 경판본은 신천자를 천벌을 받을 정도로 혼암하고 무도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경판본에서 송나라 천자가 결코 천명, 즉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절대적인 존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³⁷⁾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판본에서 수문 부자는 신천자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만고충신들로 형상화되어 있었으며, 반면 신천자는 천벌을 받기에 이르는 무도한 군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물형상에는 송조의 위기가 천자에게서 비롯되고 있으며, 송조가 수문 부자와 같은 몇몇 충신들에 의해 간신히 존립하고 있다는 경판본의 작자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송조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한 작자인식은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직설 아골디 겨오 목숨을 부지하여 모스 신비회와 무양춘을 좃즈 다리고
 녀진의 드러가 분흔들 니기지 못하여 왈, “우리 양춘의 말을 듣고 빅만대병
 을 날회여 대국을 치미 위왕 현수문의 칼 아리 귀신이 다 되고 다만 도라오

36) 최성훈, 『천명과 교화, 그리고 정명-천자적 권위의 계보』, 『중국학연구』 51, 중국학연구회, 2010, 320쪽 인용. 더불어 논자는 『禮記』의 “천하의 군주를 천자라 한다(君天下曰天子)”와 『漢書』의 “왕은 하늘을 어버이처럼 모시므로 천자라 칭한다(王者父事天, 故爵天子)”는 구절이 모두 ‘천자’를 천하를 다스리고 하늘을 받드는 존재로 생각했던 당대인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37) 물론 신천자는 현침이 준 선약을 먹고 깨어나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인물로 거듭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송조에 대한 작가의 희망이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기 보다는 현침의 충성심을 부각하는 가운데 송조의 존립을 지향한 서사 변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는 사름은 우리 슈삼이라.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 하고 다시 반흐를 췌흐더라. [경판본, 하권-25b~26a]

위는 경판본의 서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위왕에게 패한 여진의 모사 신비회와 장수 아골대 그리고 계양춘 등이 목숨을 부지하여 여진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반란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판본에서 이들이 다시 송나라를 침범하는 일은 결국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경판본이 의도적으로 언제든지 송조가 망국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⁸⁾ 다시 말해, 경판본에서 송조 및 신천자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절대성마저 상실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본론의 논의를 정리하고 현수문진 경판본의 의의를 간략하게 밝히는 것으로 본고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경판본의 서사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 먼저, 선본과 경판본의 후반부 서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판본의 서사 변개는 선본에서 왕조교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송의 멸망과 여진의 건국을 골자로 한 진강도

38) 그간 현수문은 송나라를 침범한 서번의 모사 양평공과 장수 약대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참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현수문이 송조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이들의 목숨을 살려두었다는 것은 현수문의 평소 행적 및 성향과도 반하는 것으로 경판본의 의도적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인의 예언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을 통해 경판본의 서사가 궁극적으로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송조의 존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인물형상에 나타난 경판본의 작자인식은 서사 변개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경판본의 서사적 지향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경판본에서 수문 부자는 선봉과는 달리 천자의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송조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탑재한 인물들로 변화되어 있었으며, 신천자는 천벌을 받기에 이르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인물형상이 송조의 위기가 천자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과 몇몇 충신들에 의해 힘겹게 존립하고 있는 송조의 위태로움을 부각한 것으로 보고, 결국은 송조 및 신천자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한 작자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즉, 경판본은 적극적인 서사 변개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송조의 존립을 지향하면서도, 실상은 송조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해버린 작자인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수문전』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 초반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지 이미 한 세기가 훌쩍 넘어버린 시기였다. 그 사이 청나라는 ‘오랑캐의 운수는 백년을 넘지 못 한다’는 조선사회의 통념을 깨고 군사대국을 넘어 문화적 융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청나라의 변영은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사회에 ‘북학(北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욱이 순조(재위 1800~1834)가 즉위하면서 시작된 세도정치 및 이양선의 출몰로 가시화된 서구 세력의 위협은 극진한 대청사대외교로 이어지며 조·청 관계의 질적 변화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명·청 교체 이후 더욱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중화의식 속에서 강하게 자리했던 존명의식이 그 시의성을 상실해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조선 후기의 역사인식 속에서 송나라는 명나라의 역사적 유비로 인식되기도 했는데,³⁹⁾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를 천명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한 선본의 서사는 청나라의 중원 지배와 나아가 명나라의 멸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 당대 중화의식은 여전히 조선의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주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⁴⁰⁾ 이는 명나라에 대한 관념적 의리의식의 추수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령, 영·정조는 신하가 임금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을 ‘존주(尊周)의 의리(義理)’로 해석하며 이를 강조하였고,⁴¹⁾ 이복휴(李福休, 1750~1805)는 『복설의(復雪議)』를 통해 명나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39) 허태용은 조선 후기 정통론의 영향 속에서 과거 남송과 원나라의 역사가 남명과 청나라와 비교되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허태용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허태용, 『조선후기의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94~97쪽. 더불어 우리 고소설 가운데에는 명나라와 더불어 송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임치균은 이러한 양상을 당대 팽배했던 한족 중심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으며 엄태용은 명·송이 고전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한 원인을 이들 왕조가 당대 조선인들에게 중화질서의 정통성을 계승한 우호적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임치균,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13~114쪽; 엄태용,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54~156쪽. 이러한 양상은 당대 소설 속의 송나라가 소설 밖의 명나라에 대한 인식이 투사된 공간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0) 유미림은 ‘中華’ 관념이 명·청이 교체된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도 여전히 조선후기의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지배적 관념으로 자리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유미림, 『조선후기의 정치사상』, 지식산업사, 2002, 281~374쪽.

41) 가령, 영조는 자신이 대보단에 가서 신하의 예를 취하는 것은 신하들로 하여금 군신의 예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고백하기도 하였으며, 『御製常訓』의 내용 중 ‘존주’를 ‘존왕’으로 바꾸기도 했다. 또한 정조의 경우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존주의 의리’라고 해석하였는데, 여기에는 尊周大義, 즉 겉으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신민들에게 군신 간의 의리를 인식시키고 상하의 명분을 확실히 하여 당대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허태용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허태용(2009), 앞의 책, 128~129쪽.

에도 불구하고 북벌을 주장했다.⁴²⁾ 더불어 순조 초반에는 송명사상을 비판했다는 이유에서 지현 강세정(姜世靖)과 지평 목태석(睦台錫)이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⁴³⁾ 이러한 양상은 존명의식이 시의성을 상실해버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명의리를 표방했던 조선 후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⁴⁴⁾ 경판본에는 바로 이러한 조선 후기 사람들의 복잡 미묘한 대외인식이 담겨 있다. 그러한 까닭에 경판본은 조선 후기 대외인식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경판본의 존재는 우리 고소설 작품들이 이본 생성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유들을 개진할 수 있는 일종의 “장(場)”으로써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42) 18세기 후반 이복휴가 쓴 『復雪議』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청에 대한 복수가 어려운 과업임을 밝히고, 복수를 위해 실행해야 할 근본적인 사항들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담춘이 북벌의 어려움으로 꼽은 첫 번째는 “명나라가 처음부터 폭력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임형택, 『우리 고전을 찾아서-한국의 사상과 문화의 뿌리』, 한길사, 2007, 436~437쪽. 이러한 담춘의 주장에서는 대청복수에 대한 당위성과는 별개로 명나라 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경판본에 나타난 송나라에 대한 작자인식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43) 강세정은 추항 때 초헌관으로서 축문을 읽으면서 ‘崇禎’이란 명나라 연호 대신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고자 했으며 명나라가 망한 지 수백 년이 흘렀음을 들어 대명의리론을 비판했다. 또한 목태석은 명나라 의종의 정치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모두 불경죄로 처벌을 받아 유배형에 처해졌다. 박현모, 『세도정치기(1800~1863)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44-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11~12쪽.

44) 기실 이복휴가 북벌을 주장하면서 명나라의 학정을 지적한 것이나 순조 초반 조정의 관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대명의리론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 나아가 이전 시기에 영·정조가 신하가 임금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을 ‘존주의 의리’로 해석한 것 역시 겉으로는 대명의리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 이면에는 존명의식이 시의성을 상실해가던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5) 졸고(2016), 앞의 논문, 105쪽 인용.

참고문헌

『현수문전』 대영박물관 소장 경판본

『현수문전』 홍윤표 소장 필사본

『현수문전』 박순호 소장 필사본

- 김수봉, 「현수문전의 영웅소설적 위상」, 『한국문학논총』 14, 한국문학회, 1993, 177~196쪽.
- 김용기,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 연구 -<음양삼태성>과 <현수문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105~134쪽.
- 김종철, 「玄壽文傳의 분석」, 『인문논총』 1-1,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41~62쪽.
- 김현정, 「활자본 <현수문전>을 통해서 본 독자성향」, 『한문학논집』 26, 근역한문학회, 2008, 89~111쪽.
- 박현모, 「세도정치기(1800~1863)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44-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7~26쪽.
-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62쪽.
- 유미림, 『조선후기의 정치사상』, 지식산업사, 2002, 1~416쪽.
- 임치균,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11~134쪽.
- 임채문, 「<현수문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04쪽.
- 임형택, 『우리 고전을 찾아서-한국의 사상과 문화의 뿌리』, 한길사, 2007, 1~748쪽.
- 정충권, 『판소리 문학의 비평과 감상』, 도서출판 월인, 2016, 1~290쪽.
- 조해숙, 「<현수문전> 이본고-작품구성 및 주제의 변모양상」,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49, 한국어교육학회, 1993, 59~88쪽.
- 주수민, 「<현수문전> 이본 연구」, 『정신문화연구』 1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27~256쪽.
- _____, 「한글 고소설 이본 확산의 일 경향과 그 의미-<현수문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83~109쪽.
- _____,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식 연구-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 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199쪽.
- 최범호, 「〈현수문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83쪽.
- 최성흠, 「천명과 교화, 그리고 정명-천자적 권위의 계보」, 『중국학연구』 51, 중국학 연구회, 2010, 315~340쪽.
-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1~279쪽.
- 현혜경, 「지인지감유형 고전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32쪽.

ABSTRACT

Ostensible orientation and inside substance
of <*Hyeonsumunjeon*> Gyeongpan edition

Joo, Soo-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thematic consciousness of the Gyeongpan edition of *Hyeonsumunjeon* under the magnetic field of its the best version. First,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pan edition is based on the events related to the dynastic change shown in the best version, and it is not realized the prophecy of the Jingang Doin, which is “Destruction of the Song and foundation of Yeojin” in the process. This paper shows that the narratives of the Gyeongpan edition are ultimately directed toward the existence of the Song and sublates the dynastic change by other nations.

Meanwhile, intention of writer looks different to ostensible narration of the Gyeongpan edition. It means writer of the Gyeongpan edition expressed negative perceptions of the Song dynasty and gave prominence to dangerous situation of Song that barely maintained by a few loyalist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heroes who are loyal father and son, main characters, and Shincheonja punished by heaven. The Gyeongpan edition follows existence of the Song dynasty on the surface but express loss of the Song dynasty’s absoluteness. This paper says that Gyeongpan edition is reflected external awareness of late Joseon dynasty that it has fidelity ideologically in a situation lack of respectation about Myoung dynasty..

Key Words *Hyeonsumunjeon*, Gyeongpan edition, narrative characteristic, Consciousness of Author in Gyeongpan edition

논문투고일 : 2018.04.23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